



김정일의 권력 승계 지연과 향후 과제

제임스 컷튼 / 호주 타스매니아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일성 사망 1주기 추도 대회에 김정일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가 곧 공식 권력을 승계 하리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시기적으로는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김정일이 앞으로 자신의 정권을 공고화하는 데에는 매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년 이상 동안 국가 원수와 지배 정당의 당수가 없는 상태로 지내 왔다. 하지만 김정일이 그토록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권력의 정상에 다가간 배경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김정일이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노동당 지

도급 인사들에게 처음 천명된 것은 2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비록 북한이 이 구상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자 승계가 매우 특별하고 유별난 정치적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과거에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

이 있었으며, 아직도 북한 정권내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는 그리 인기 있는 구상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게다가 김일성 고유의 독특한 통치 스타일과 접근법을 따라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일성은 진정한 (비록 나중에 많이 왜곡되기는 했지만) 애국 지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그는 또한 국가 통치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스타일을 지니고 있던

카리스마적 인물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일은 자신의 성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주로 영화 제작자, 그리고

“

김정일은 자신의 성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주로 영화 제작자.

그리고 이념 문건 작성자로서이다.

그는 칩거를 좋아하고, 대중 앞에서의 연설을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

이념 문건 작성자로서이다. 그는 칩거를 좋아하고, 대중 앞에서의 연설을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인물이다.

게다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승계를 했더라면, 김정일은 두 가지의 곤란한 정책 수행에 직접

간여해야만 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사망 직전에, 지미 카터 전(前)대통령의 평양 방문의 결과로서, 남한측 최고 지도자와의 정상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제안으로서, 남한 정부는 이를 신속히 수용하였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애도 기간 중에는 그러한 회담이 개최될 수 없음을 알려 왔다. 김일성은 북한의 경제난과 기타 다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개인적 위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현명하게도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역할 수행을 서두르지 않았다.

또한, 미국과의 핵 대결 상황의 해결이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1994년 10월의 제네

바 합의는 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외교적 승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북한 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토록 오랜 동안 전통적 적성국가로 간주되어 왔던 국가와의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 싸고 북한 지도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협상 과정 중에 김정일이 권력의 최정상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는 그의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지

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용이하게 만들거나 혹은 필요하게 만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김정일 사후 1년이 지났으며, 이는 충분한 애도 기간이 되었다고 보인다. 김정일의 권력 내부에 대한 장악력은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물 교체, 특히 현재 북한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

“

북한의 현재 시기가 특별한 상황이지만, 국가 및 당 최고 지도자의 지속적인 부재는 일반 국민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일단 김정일이 공식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면, 그로서는 전보다 나은 위치에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은 아니다.

”

부족과 나쁜 날씨는 식량난을 초래했으며,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긴장만 지속될 뿐 자본과 기술을 별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남한의 투자로부터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남북한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할 것이다.

의 인물 교체로 알 수 있다. 미국과의 핵 협상은 이제 견고해 졌다. 최근 팔라폼푸르 협상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양보의 한계선을 그어 주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연료

비록 북한 체제가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편은 아니나, 당대회 및 최고인민회의의 개최가 꽤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 당대회는 5년 전에 개최되었어야 하며, 새로운 최고인민회의의 의원들도 올 초에 선출되었어야 했다. 물론 북한의 현재 시기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국가 및 당 최고 지도자의 지속적인 부재는 일반 국민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일단 김정일이 공식 권력을 승계하게 된다 면, 그로서는 전보다 나은 위치에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처한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경제난이 가장 커다란 문제임은 분명하다. 식량난은 제쳐 두고라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중단의 결과 북한 전체 경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 시장과의 연계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정권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폐쇄 사회였으며, 급속한 개방은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

다. 북한은 1991년 12월 북동 지역에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공표함으로써, 이미 경제 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다. 물론 이 계획이 지난 10년간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변혁을 가져 올 수 있었던 정도의 강한 해외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투자 조건들이 더욱 더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은 김일성이 남긴 유산 중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요소에 직면해야

“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중단의 결과
 북한 전체 경제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 시장과의 연계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정권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폐쇄 사회였으며, 급속한
 개방은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만 할 것이다. 김일성이 북쪽에 분리된 정권의 유지를 정당화했던 근거는, 비록 모든 한국민들의 최우선 의무는 통일 조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는 하나, 남한이 미국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분단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남한의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낡은 것이 되어 버렸고,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됨에 따라 분리된 북한 국가의 존립 근거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 문제의 처리야말로 김정일 정권이 직면한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